



12일 광주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제14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부산공고-광주 동성고 경기, 8회초 부산공고 공격에서 동성고 투수의 폭투로 3루주자 박용훈이 홈으로 쇄도했으나 아웃됐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히어로

광주 동성고 투수 장경훈



“전국대회 첫 선발에 승리까지 기쁨 두배”

“전국대회 첫 선발등판에서 승리 투수가 돼 기쁨이 두배입니다.” 12일 ‘청룡기 4강팀’ 부산공고와의 대결에서 승리투수가 된 동성고 선발 장경훈(18·170cm 60kg)은 “직구와 투심을 적절히 섞어 던졌는데, 제구가 너무 잘 됐다”고 승리의 비결을 밝혔다.

장경훈은 “오전에 경기장에 나왔는데, 선발투수라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했다”며 “TV 중계가 있는 날 던져 이젠 스타가 된 것 같다”며 해맑게 웃었다.

화강초등학교 6학년때 투수로 입문한 장경훈은 사실 지난해엔 동성고 선배 양현준(19·KIA)에 가려 있었고, 올해에는 같은학년 ‘에이스’ 윤명준의 활약에 묻혀 큰 빛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전국대회 첫 선발 등판한 이번 무등기 대회에서 막강 부산공고의 타선을 7이닝 동안 4피안타 3탈삼진 1실점으로 요리하며 ‘깜짝 스타’로 태어났다.

언더핸드 투수인 장경훈은 120km대의 직구와 110km대의 투심이 주무기로, 타자의 몸쪽으로 파고드는 직구 제구력도 뛰어나다.

장경훈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 일단 대학에 진학해 기본기를 다진 뒤 프로야구에 뛰어들고 싶다”며 “지금의 목표는 당연히 무등기 우승”이라고 우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제14회 무등기 고교야구

인창고 김태훈 9K “우리도 16강”

〈대회 2일째〉

‘호남야구명문’ 광주동성고와 ‘영남대륙’ 부산공고를 누르고 16강에 합류했다.

동성고는 12일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 14회 무등기전국야구고교야구대회(광주일보사·대한야구협회 공동) 부산공고와의 이틀째 1차전에서 선발 장경훈과 마무리 윤명준의 합작 호투소로 2-1, 짜릿한 1점차 승리를 거뒀다. 구리 인창고와 공주고도 각각 구미전자공고와 춘천고를 1-0, 8-6로 꺾고 16강에 진출했다.

구리 인창고 1-0 구미전자공고

구리 인창고는 0-0으로 팽팽한 투수전이 이어지던 4회 선두타자 이종현이 볼넷으로 걸어나간 뒤 김범준의 좌익수 키를 훔쳐 넘

기는 2루타로 결승점을 뽑아냈다.

인창고 선발 김태훈은 6.2이닝동안 9탈삼진을 속이내며 1피안타 무실점의 완벽 피칭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6회까지 무안타에 그친 구미전자공고는 7회 첫 타자 박재희의 좌익선상을 타고 흐르는 2루타로 득점 찬스를 잡았으나, 후속타 불발과 2루에 있던 박재희가 견제사로 헛사하면서 모처럼 찾아온 득점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구미전자공고는 9회말에도 2사 1, 2루 홍효의 타석때 2루주자 박재희가 3루를 홈치다 아웃 당해 1회전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동성고, 부산공고에 신승...공주고도 춘천 꺾고 16강 합류

동성고 2-1 부산공고

마운드의 싸움이었다. 결과는 동성고의 2-1 진담승리.

동성고는 3회 2사 후 문성재의 볼넷에 이어 윤명준의 폭투때 홈으로 쇄도하던 박용훈이 포수 태그 아웃을 당하는 바람에 동점의 기회를 놓쳤다.

동성고 선발 장경훈은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고, 이어진 윤명준은 2이닝 무안타, 2탈삼진으로 뒷문을 지켰다. 부산공고 선발 김원석은 7.2이닝 7피안타, 7탈삼진, 2실점으로 잘 던졌으나 팀 타선의 침묵으로 패전 투수가 됐다.

공주고 8-6 춘천고

공주고의 집중력과 춘천고의 끈질긴 근성이 돋보이는 한판 승부였다.

1회 1점, 2회에 3점을 추가한 공주고는 3회에도 1점을 보태 경기 초반 5-0으로 밑거름을 쌓았다. 9회에도 1점을 보냈다.

이에 춘천고도 곧바로 대 반격에 나섰다. 춘천고는 5회 연속 2안타와 희생번트를 엮어 만든 무사 2, 3루에서 상대 야수의 송구 실책으로 2점을 만회했다. 춘천고는 9회말 대거 4점을 뽑아내며 승부를 연장자로 돌렸다.

공주고는 연장 11회초 양정훈의 희생플라이로 결승점을 뽑았다. 계속된 공격에서 상대 수비의 송구 실책으로 1점을 더 추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무등기는 전국 주요 고교야구대회(41회 대동령배·60회 황금사자기·62회 청룡기·37회 봉황기·59회 화랑기·28회 대붕기)에 비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무등기에 쏟아지는 관심과 애정만큼은 어느 대회보다 뜨겁다.

선수에게 가장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대회 시기와 공정한 경기 진행이 무등기 인기비결이라는 게 8개 구단 스카우트들과 참가팀 감독들의 평가.

KIA타이거즈 김경훈 스카우트팀장은 “무등기는 2008년도 신인 2차 지명시기(올해는 8월16일)를 앞두고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선수들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며 “KIA 마운드의 핵심인 신용운·윤석민도 무등기를 통해 선발한 경우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주고 출신인 신용운은 제8회 대회에 참가해 감투상을 받았고, 윤석민은 아탑고의 에이스로 제11회 대회에서 모교를 준우승으로 이끈 주역이었다.

“무등기 가장 공정한 대회”

“개최 시기도 선수기량 절정 6월”

프로야구 스카우트들 관심 집중

삼성라이온즈 장효조 스카우트 팀장도 “선수들의 기량이 절정일 때 대회가 치러져 앞서 열린 대통령배와 청룡기에서 눈여겨 본 선수들을 재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프로야구 8개 구단 스카우트들은 무등기

대회가 열리는 무등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의 면면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춘천고 최정기 감독은 “실질적으로 6·7월에 선수들의 대학진학과 프로진출 등 진로가 결정되는 만큼 무등기는 선수들에게도 중요한 대회다. 또 프로구장에서 경기

▲ 승리 향한 젊은 함성 뜨거운 시선

12일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춘천고와 공주고의 경기. 공주고 선수들이 덕아웃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동료들을 격려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를 하면서 선수들이 기량을 키울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유신고 이상열 감독은 “호남지역의 유일한 대회로 아마야구 부흥에 기여하고 있고, 지역대회에 나가면 종종 텃세가 있기도 하지만 이 지역에는 명문팀들이 쟁쟁하게 경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다른 대회보다 공정하게 경기가 진행되는 것 같다”고 호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오늘의 무등기 야구

- 1차전 김해고-효천고(10시) 상원고-안산공고(12시30분·KB-SN 중계) 장흥고-진흥고(15시)

■ 내일의 무등기 야구

- 16강전 광주일고-충암고(10시) 부경고-체물포고(12시30분·KB-SN 중계) 인창고-유신고(15시) 동성고-선린인터넷고(17시30분) <앞쪽이 선공·1루쪽 더그아웃·이 상 무등경기장>